

사회

화장 급증... 장례도 제 때 못치른다

광주 영락공원 1년 새 50% 늘어 오전 11시대 몰려 예약 싸고 마찰

최근 화장이 증가하면서 장례 편의를 위해 유가족들이 특정시간대만을 고집해 예약을 둘러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광주영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3건이었던 화장이 올해 하루 평균 20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화장로 7기(예비 화장로 1기)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영락공원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어 최대 24건의 화장이 가능하다.

특히 화장시설이 부족한 수도권이거나 전남지역에서도 광주로 예약자가 몰리고 있어 내년부터는 화장로 부족으로 인해 장례를 제 때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이나 전남지역의 경우 화장 예약을 못해 장례 일정을 2~3일 연기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는 매일 화장건수(20)가 일일 화장가능건수(24) 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영락공원과 유가족들 사이에 '예약 시간'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상당수 유가족들이 오전 시간 장례식장 등에서 발인한 뒤 영락공원을 찾으면서 오전 11시에만 집중적으로 화장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오후 1시와 3시에는 화장로가 남아돌지만 장례 일정상 편리한 오전 9시와 오전 11시 화장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영락공원 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동안 사망진단서를 팩스로 보낸 후 전화 예약순으로 화장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유가족들이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 장모(53)씨는 "화장하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보낸 뒤 오전 9시 예약전화했더니 이틀 뒤 오전 11시 6기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는 이야

기를 들었다"며 "예약했다는 곳에 알아봤더니 영락공원 이야기와는 달랐고 특정인을 위해 미리 예약해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약 순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이 입의로 예약순서를 뒤바꾸거나 특정인을 끼워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락공원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화장 예약 순서를 어지럽혀 팩스로 보낸 후 전화 예약순으로 화장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며 "장의 편의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만 예약이 집중되면서 때때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상묘 벌초 민족 대명절인 추석(22일)을 보며 앞둔 5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에서 묘지 관리인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원 잘못 선주도 같이 처벌' 수산업법 '양벌규정'은 위헌

현재 결정

종업원이 조업제한을 위반하면 종업원뿐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도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한 수산업법상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제정한 수산업법 제9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바로 영업주와 종업원을 같이 처벌하는 것은 비난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벌의 책임주위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공현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 "해당 조항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원·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본다"고 해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와 고의가 있는 종업원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별개의견을 덧붙였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용자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동을 재판관은 "영업주에게 선원·감독상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 책임주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벌초 때 벌 조심

화순·나주 등 사고 잇따라... 화장품 사용 말아야

추석을 앞두고 산에서 벌초를 하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화순군 화순읍 주도리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이모(54)씨가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등 등 3곳을 벌에 쏘여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이날 오전 9시 45분께에도 화순읍 한 야산에서 조상의 묘를 벌초하던 구모(41)씨가 왼쪽 손을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오전 8시20분께에는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백동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배모(27)씨 등 일가

족 4명이 벌에 쏘이는 등 전남에서만 이날 하루 10여명이 벌에 쏘여 병원을 찾았다.

전남지역에 벌쏘임 환자가 잇따른 것은 최근 더위가 계속돼 벌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벌초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9월은 벌이 가장 왕성하게 번식 활동을 하는 시기"라며 "벌초를 할 때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과일이나 음료수 등 단 음식을 주변에 두지 말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담뱃값 안 준다고 할머니 흥기 살해

순천경찰, 20대 구속

순천경찰은 5일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친할머니를 흥기로 찔러 살해한 황모(29·무직)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 순천시 황전면 자신의 집에서 흥기로 할머니 박모(84)씨의 가슴과 복부, 옆구리 등을 1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간대에만 예약이 집중되면서 때때로 이같은 사태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이날 박씨에

게 담뱃값 1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고 말하자 황씨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황씨의 부모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범행도중 흥기로 오른쪽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치료를 받기 위해 순천시내 병원 2곳을 찾았으나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집 주변을徘徊하던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황씨가 평소 급한 성격이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원룸 성폭행·강도 광주서 하룻밤 2건

하룻밤 새 여성 혼자 사는 광주 시내 원룸에서 2건의 강도강간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A원룸 2층 이모(여·24)씨의 집에 20대으로 보이는 괴한이 침입, 이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2만원을 빼앗아 도망갔다.

범인은 노크를 한 뒤 출입문을 열어주자 이씨를 성폭행했다. 경찰은 175cm의 키에 마른 체격의 검은색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은 20대 초반의 용의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또 A원룸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하는

한편,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새벽 5시께에는 광주시 북구 삼각동 B원룸 김모(여·28)씨의 집에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 김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자러는데, 괴한 한 명이 들어와 성폭행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등으로 미뤄 허위신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신종플루 무료 예방접종 남구보건소

광주시 남구보건소는 "6일부터 12월 말까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 만 19세~49세 사이의 주민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1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남구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확진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거나 과거 계절 독감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등은 접종에서 제외된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인도와 뉴질랜드, 태국 등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영광 고구마창고 불 6500만원 피해

지난 4일 새벽 3시10분께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광모(여·49)씨의 고구마 보관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6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불로 창고 다섯개 동 가운데

두 동(396㎡)이 전소됐으며, 한 동(198㎡)도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광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여수 앞바다 40대 변사

지난 4일 밤 8시50분께 여수시 화양면 응주리 고내마을 선착장 앞 바다에 광모(42·여수시 선원동)씨가 물에 빠져 숨진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경찰에서 "풍랑"하는 소리가 들려 바닷가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광씨가 물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광씨는 이날 친구들과 함께 선착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국새 의혹' 민홍규씨 영장

'국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민홍규(56) 전 4대 국제제약당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국새 제작과 관련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국새를 제작하고 정부와 국새 제작 계약을 맺어 1억9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또 지난해 초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시하면서 40억원 짜리라고 홍보해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손님 술 받아 마신 동거녀 뺨 때려

○호프집을 운영하는 동거녀가 손님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3)씨는 지난 4일 밤 8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슈퍼마켓 앞에서 동거녀 최모(53)씨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최씨의 호프집에 갔다가 손님들이 주는 술을 최씨가 모두 마시는 것을 보고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남자들이 주는 술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빅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벽 상건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예약문의 525-2111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